변화(變化)와 진화(進化)

최기형 교감선생님

공교롭게도 방학식날 저녁때 총동창회 임시총회가 학교에서 개최되어 텅 빈 교무실을 지키다 인사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십 수 년 동안 장학금을 주시고, 학교와 동창회 행사 때마다 오시기에 항상 반갑고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여럿 있어 매번 참 기쁜 마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장학재단설립'이었는데, 이덕인 총동창회장님의 인사말씀이 무겁게 가슴에 와 닿아 요지를 소개합니다.

"76년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인 동산이 낙후된 원도심 지역 여건상 1지망에 미달인 것은 오래 되었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학생 수가 점점 줄어 앞으로 존폐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는 것은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게 하여 학교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동창회와 학교, 재단이 합심하여 명문 동산의 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예전에는 인구가 많았기에 우리 학교를 포함하여 J고, K고, S고 등 여러 고등학교가 있던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주변 중학교 졸업생들로는 1지망을 모두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2010년에 1지망에 92.3%이었는데, 작년에는 75.4%, 올해는 66.2%로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라는 이중고(二重苦)가 더해졌습니다. 다만, 근래에 고무적(鼓舞的)인 것은 원거리에서 배정된 학생들 중 학력 우수자가 다소 있다는 사실입니다. 1학년 1학기말 성적을 보면 상위 10% 이내에 원거리 배정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학생들이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산의 미래가 산술적으로 절반은 원거리 우수학생 유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원거리 소재 중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학교 홍보를 하고, 희망 학생의 기숙사 수용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되어야겠습니다. 총동창회장님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으면, 즉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급기야 학교의 존립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나 기업이나 진화하는 존재만이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메이저 리그 2년차인 동산의 자랑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첫 게임에서 11승을 채우고 인터뷰하며 "난 변화하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날 위해 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큰 자신감을 갖고 변화하고 있다"고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난해 14승을 거두며 보였던 투구 기술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안주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커쇼의 슬라이더와 베켓의 커브를 카피해' 투구에 변화를 주었던 것이 류현진 선수를 '진화하는 괴물' 로 불리게 한 것입니다. 〈동산70년사〉의 축하 휘호 '불로동산(不老東山)' 이 문득 생각납니다. '과거의 훌륭한 전통은 계승하되,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발전해나갈 것이다' 라는 주석을 담고 있습니다. 동산의 선생님들이 먼저 변해서 학생들을 일깨워 진화하도록 하면, 학부모님들과 동창회, 지역사회의 신뢰와 후원은 자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전통과 과감히 버려야 할 인습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민족 사학이라는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효행심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동산의 전통이라면, 부화뇌동하여 자율학습에 빠지고 게임방에 가는 것은 인습입니다. '오고 싶은 동산, 모두가 행복한 동산인' 의 꿈은 '학덕의 동산' 으로 변화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화하기 위해 새롭게 변화하는 동산인의 모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